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한나라당의 혼선과 무능이 반복되고 있다. 개헌 등 국정의 주요 학문을 던져놓고는 뒷감당도 못하는 일이 쌓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법 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 절회를 둘러싸고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측은 “부자·대기업 중심의 정책 노선을 친서민 정책 노선으로 수정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서민·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구나,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복지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세 유지를 지지하는 측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 추세리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감세는 현 정권의 핵심 정책 기조인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훼손시키는 것이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하튼 여당 내에서 부자감세 철회 논쟁이 제기된 것은 본질적으로 ‘표’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나라당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나라

한나라당의 대위기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층의 30.4%,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의 33.6%가 ‘정권 교체’를 원했다는 점이다. 표면상으로는 한나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 동시에 민심의 밑바닥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품겨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과거에도 보수를 지지했고 현재도 지지한다’는 ‘보수 절대 지지층’은 20.5%인 반면, ‘과거에도 보수를 지지하지 않았고 현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보수 절대 반대층’은 56.9%로 2배 이상 많

았다. 특히, ‘과거에는 보수를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보수 이탈층’의 규모가 13.9%였다. 이탈 이유로는 가장 많은 32.1%가 ‘기대만큼 경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재벌 등 가진 사람들만을 위하기 때문에’(20.7%),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17.9%), ‘부패하기 때문에’(16.4%)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보수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싫어한다’(44.1%)가 ‘좋아한다’(19.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MB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도, ‘나빠졌다’(32.8%)가 ‘좋다’(16.9%)를 월씬 웃돌았다.

이런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주는 합의는 대선 후보를 포함한 여당 지지의 25% 정도가 거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커졌다 고 할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 박 전대표의 압도적인 지지도에 바탕을 둔 대세론에 도취되어 변화와 개혁을 멀리하면 막판 DJP 연대로 패배했던 97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이 보수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KPSI 조사에 따르면, 향후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보수’(30.0%), ‘서민과 중산층을 우러르는 포용적 보수’(28.2%)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청목회 입법 로비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해 육석을 가려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감세 철회가 대통령 경제특보 말 한마디에 지도부가 서둘러 논장을 중단한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한나라당이 진정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부자감세’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우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감세 철회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당내 소장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결론지는 성숙하고 활力 넘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지지도와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토대로 변화의 중심에 서느냐가 2012년 대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날개 단 ‘풍력 산업’ 민자유치가 관건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전 영광 원전에서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영광과 전북 부안 해역에 오는 2019년까지 모두 9조2590억원을 투입해 25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먼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풍력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년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영광과 부안 해역을 최적지로 결정한 점,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건설·플랜트·전기 등의 연관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조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와는 별도로 5GW의 매머드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전남도의 입장에선 날개를 단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차원의 풍력발전 기술과 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되면 시너지 효과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전남도가 풀어야 할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실종…‘義鄉’ 부끄럽다

광주·전남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 노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적지에 안내판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자자체의 홈페이지에도 사적지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등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는커녕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의향(義鄉)’을 자처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가 발표한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23개 지역 176곳의 보존실태와 활용방안’ 보고서를 보면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다. 광주시 동구 구동 광주공원의 현충탑 자리에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위해 세운 ‘광주신사’가 있었으나 이곳 안내판에는 한국 전쟁 전몰장병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다고 한다.

일제 때 광주경찰서가 자리했던 동구 금남로 충장서립, 독립지사들을 투옥해 살해했던 동명동 ‘광주형무소 터’, 일본 계획으로 놓여진 미술관에서는 세 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

의료 칼럼

최정기



완연한 초겨울을 맞은 11월에는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깔깔한 기운으로 말초혈관이 수축해 운동중 심장마비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의학적으로 돌연사란 예고 없이 또는 증상이 나타난 지 한 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은 심장질병으로 그 중 관상동맥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원인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공허한 느낌이 들거나 식은땀 또는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한 다음에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의 증세에도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에 운동할 때는 한층 보온유지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노인 환자들은 추운 날 새벽 운동을 피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오전 7~10시 사이에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기

정기 건강검진으로 돌연사 예방해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중 특히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질병도 하나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통 45~75세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돌연사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증세도 없이 사망하며 그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등 환자이거나 흡연자들이다. 그 나머지는 관상동맥 질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앞가슴 쪽에 계속되는 통증이나 땁났던 사람들이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부위만 다른 뿐 혈관질환이라는 한 뿌리에서 발생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는 곧 심근경색증과 동맥경화증으로 이어져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뇌졸렬이나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슴 기운에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압박감, 통증, 충만감이 느껴지는 경우, 가슴 한복판으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어깨·목·팔로 퍼지게 된다. 또한 머리가

때문이다. 또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혈압을 더 올라가게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우나는 탈수현상 때문에 심장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쇼크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어주의해야 한다.

돌연사의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을 미리 찾아내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돌연사 기에 더욱이 정기적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돌연사와 관련된 건강검진으로는 T. Cho, TG, HDL-Chol, HDL-CPL 등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검사와 LDL·CPK 등 심근경색 및 근위축증 검사, 심혈관 계질환 및 종종 관련질환 검사인 hs-CRP·심근경색·부정맥·협심증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심전도검사 그리고 혈관경색도 혈관나이를 측정하는 동맥경화도 측정, 심장초음파, 심장·뇌 CT촬영, 뇌졸렬 및 뇌경색 진단에 우수한 MRI 검사 등이 있다.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진료부장〉

기고

박경곤



국토 서남권의 중심인 목포는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면서, 서남권 8개 시·군의 관광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최근 일본 나오사마 일대를 다녀왔다. 관광 업무를 맡고 있는 나에게 이번

나오사마 여행은 관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곳은 매년 50만 명이 찾는 현대미술의 메카이다. 아름다운 섬의 자연을 건축에 끌어들여 모든 것을 자연친화형

으로 땅 속에 설계한 지축(地中)미술관

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의 창의성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일행을 쟁여주는 친절함은 마음에 남는 바가 많았다.

지축미술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네세 하우스는 1992년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호텔과 미술관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다카마스 미술관의 전시도 놀라웠다. 이곳에서는 일본 현대미술의 새로운 접근과 실험정신을 시도한다는 컨셉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또 오사카의 오하라 미술관에서는 세

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

문화예술이 관광객 불러 들인다

때문이다.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지(Conde Nast Traveler)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7대 명소인 나오사마. 일본의 출판교육기업인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 1987년 섬의 절반을 사들인 후 460억엔 (한화 약 6400억 원)을 투자해 미술관을 세웠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다다오와 함께 노출콘크리트 스타일로 건축하여 미술관 자체를 예술품처럼 느끼게 하였고, 브루스 나우먼, 짠슨 풀록, 앤디 워홀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제일교포 이우환 작가의 전위 예술작품을 시작으로 섬 전체에 적정하게 배치된 미술관을 차례대로 관람하였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유명작가들의 조형물을 마지막으로 감상하면서 생기를 잃어가던 섬에 예술의 영감을 불어 넣고 역사를 바꾼 한 기업인의 의지에 찬

다. 샤갈, 고갱, 피카소, 로댕, 클로드 모네, 르누아르 등 세계적 거장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나의 눈과 마음은 과분한 호사를 누렸다.

미술관 입구에 전시된 클로드 모네의 ‘수련’ 작품은 연못 속의 수련과 기다랗게 늘어뜨린 수영버들을 그대로 연출함으로써 작품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했고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섬세한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관광의 흐름은 과거 단순히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던 것에서 벗어나 ‘문화적 감동’을 얻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정된 관광 자원만 헛할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섬 마을에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모은 나오사마 섬의 교육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목포시청 관광사업 과장〉

학원들 자격 미달 원어민 강사 채용 결국 학생만 피해

강사가 바뀌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놔두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 강사가 바뀌는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무자격자에게 자격 미달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영어 원어민 강사들, 그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권리를 빼앗긴 건 아닌지. 영어공부와 입시를 보면서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 김점숙·광주시 북구 총효동

無等 鼓

포뮬러 원(F1) 면신의 운전석은 콕핏(cockpit)이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물체에 걸맞게 전투기 조종석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보통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언봉에 인기와 명예를 높릴 수 있는 자리를.

운전 실력만으로 F1 드라이버를 끌 수 없다는 얘기다. 달리기, 수영, 사 이를 등으로 심폐기능을 키워야 하고 2시간의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는 손과 다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봉주의 지구력, 박자성의 체력, 유승민의 순발력, 장미란의 근력에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판단력을 콕핏 착석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코리아그랑프리 운영법인 KAVO가 연일 뜻매를 맞고 있다. 경기장 건설 지연, 입장권 판매부진, 엄청난 교통대책으로 첫 대회부터 막치게 했다는 비난이다.

F1대회의 ‘콕핏’에 해당하는 이 조직에는 제대로 된 ‘드라이버’가 없었던 모양이다. 수천억의 도민 혈세를 이들에게 계속 맡겨야 하는지 묻고 싶다.

지난달 영암에서 열린 코리아그랑프리에서처럼 앞에 카메라를 향한 상황에서 시속 230km로 빙그문을 해야 할 때도 있

거나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